

# 유아교육 · 보육 혁신지원사업 선정

### 익산시 · 익산교육지원청 · 원광보건대...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5억을 확보했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현),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와 함께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공동 응모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은 지자체·교육(지원)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 주도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익산시 유아를 위한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3년간 지역 내 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각 기관은 지역 내 우수 자원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

국민생활관을 활용한 유아 생존수영 진형을 비롯해 최근 개장한 XR달산업

체험관 등 승마 체험과 강습이 가능한 공공승마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문화권의 다문화 체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참여를 도모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도어린이집과 선도유치원을 지정하고 교사 역량강화 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해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수요를 파악해 유보통합 실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치원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누리과정 컨설팅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누리과정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실질적 유보통합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유(지원)·보(육)·초(등학교)이음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이같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환 교육장은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준홍 총장은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진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직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교육부의 컨설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 다양한 소통 채널 '행복한 직장'

### 군산시, 자율적·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소통 창구 운영 '호응'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시장과 공직자들의 핫 라인을 다양한 채널로 열고 있으며 이 중 '당·나·귀(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시·티 군산!(소통하는 시장님과 티타임) 군산!' 등은 편안하고 격식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MZ 공무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당·나·귀(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는 2021년부터 운영 중으로 공직자 누구나 원한다면 시장과 직통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시장과 직원의 벽을 넘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장 관련 의견을 나누고 직장 내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만족감이 높다.

지금까지 직장동호회, 멘토-멘티, 청원경찰, 구내식당 조리원 등 다양한 직원들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부터는 국소장 및 부서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상하 직원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연차가 낮은 직원과 시장이 티타임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티 군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장과의 직통 대화 중 시장살이 궁금하다는 저연차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하게 된 '시·티 군산'은 5년 미만의 8·9급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장과 티타임을 하며 답소를 줄일 수 있어 인기다.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행사는 3월 8일부터 시작된 캐주얼데이이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운영했던 워라밸데이에 맞춰 운영되며 직원들은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한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본격화

### 입주기업·근로자가 안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 위한 디딤돌 역할

전북권 최대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업단지(이하 '군산 산업')가 디지털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여는 등 가시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군산시 디지털 뉴딜, 제2차 친환경 그린 뉴딜, 근로자 친화형 휴먼뉴딜의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

업과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023년 7월 실시계획을 통하여 교통 분야 7개 과제, 재난환경 분야 4개 과제, 생활편의 분야 8개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교통상황, 생활안전, 재난재해, 시설관리 등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주요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또한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군산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안전,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환경 선진화, 디지털 기반 지원인프라 구축, 단지내 환경 안전 통합관제를 통하여 쾌적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 영등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지역 주민과 학생의 독서 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익산교육문화회관과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환과 공동행사 추진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사업(임신·출산 분야 6건, 보육 분야 9건, 교육 분야 3건, 일자리 분야 7건, 결혼·주거 등 5건, 일·가정 양립·문화·복지 등 13건)이 검토되었다.

분야별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상황지원 △365일 24시간 보육 △혁신교육 아복합센터 △SPIC-UP 사이버 대학 학사 취득지원 △귀환청년 취업 지원 △공공시설 결혼식 지원 △가족친화인공지능 인센티브 지원 △외국인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운동 등이 제시됐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시민의 날' 비전 담아 10월 3일로 변경

익산시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담아 익산시민의 날을 변경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9년 만에 익산시민의 날이 변경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1993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을 기념해 매년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통합에 대한 의미 약화와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해 왔다.

이에 한(韓)문화 발상지로 재부각되고 있는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시절 등을 고려해 매년 10월 3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